

## 윤활유 업계 동향

### S K 에너지(주)

#### ZIC가 만든 또 하나의 명작, ZIC OW 출시

- SK에너지, 업계 최초 SAE 0W제품 범용화 성공
- 연비 극대화, 저온 시동성 향상 등 초고성능 제품
- 동급 제품 대비 가격 50% 수준, 자동차 윤활유 시장 주도 예상
- 러시아,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 고급 윤활유 시장 선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 프리미엄 윤활유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SK에너지(www.skenergy.com, 대표 신현철)는 자동차 연비를 높이고, 겨울철 시동성 등이 우수해 성능은 프리미엄급 이지만 가격은 일반 범용 제품 수준인 프리미엄 윤활유 「ZIC OW」(지크 영더블유)를 시판한다고 17일 밝혔다.

「ZIC OW」는 갈수록 고급화되고, 엔진오일의 성능을 강조하는 자동차 운전자들과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조화시킨 제품으로 SK에너지 자체 시험 및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의 연비시험에서 2%의 연비 성능 향상에 따른 기름값 절약, 탁월한 저온 시동성으로 엔진의 마모와 노후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등 국내 자동차 윤활유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능은 뛰어나면서도 동급 제품 대비 50%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되어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프리미엄급 엔진오일 사용에 망설였던 소비자들이 일반 엔진오일 가격에 ₩10,000 정도만 추가하면 프리미엄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ZIC OW」의 성능과 가격의 획기적인 차별화는 SK에너지만의 고급 윤활기유 원료와

첨단 배합기술 등으로 가능했다. SK에너지는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두마이에 정유업계 최초로 최첨단 윤활기유 공장을 가동 중이며, ZIC 및 ZIC XQ 생산을 통한 노하우로 완성된 첨단 배합기술로 성능향상과 원가절감을 가능케 했다.

윤활유는 저온점도 등급을 0W(영더블유), 5W, 10W, 15W, 20W, 25W 로 나타내며 숫자가 낮을 수록 저온 유동성이 좋은 제품이다. 저온 유동성이 좋은 0W 제품은 엔진 마모와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엔진 출력 감소 및 소음 증가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0W 제품들은 다른 제품들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에 부담이 컸다.

또한, 엔진이 작동되는 고온에서도 성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고온에서도 증발에 의한 엔진오일 소모를 줄일 수 있고, 엔진오일 교환주기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경제적이다.

SK에너지는 「ZIC OW」 출시를 기념해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달간 소비자 체험단을 모집하고, 선발된 체험단에게 무료로 「ZIC OW」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SK에너지는 가솔린, LPG 차량 운전고객 2천 여명을 추첨해, ZIC OW 4L 1캔, 1L 1캔과 함께 자동차 용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료 체험 이후에는 「ZIC OW」 사용 후기를 접수해 프리미엄급 윤활유 「ZIC OW」의 사용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프리미엄 윤활유를 저렴한 가격에 시판함으로써 그동안 가격이 비싸 망설였던 자동차 운전자들이 프리미엄 윤활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저온 시동성이 우수한 「ZIC OW」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유럽 등 해외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활유 업계 동향

GS칼텍스(주)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사랑을 이룹니다  
- 위아자 나눔장터

나눔에 동참한 임직원의 손길

구름 한 점 없이 화장한 가을날씨가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위아자 나눔장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반긴다.

“이거 얼마예요?” GS칼텍스 기업장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회사를 비롯한 GS파워, GS EPS, GS넥스테이션 등의 60여 명 직원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그와 더불어 기증된 많은 물품을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줄을 맞춰 진열하는 것도 한창이다.

제4회 위아자 나눔장터가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지난 10월 12일 열렸다. 이날 서울에만 25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전국적으로 40만 명이 위아자 나눔장터를 찾았다. 회사와 자회사 등에서는 서울의 60여 명을 비롯해 대전 18명, 전주 7명, 가족장터 5가정 20명 등 105명의 인원이 참석해 활발한 나눔활동을 펼쳤다.

대전기술연구소, 대전저유소, 전주저유소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섰다.

열 손가락으로 한 그릇을 채우다

이윽고 11시 30분, 제4회 위아자 나눔장터의 개장식이 시작됐다. 후원사인 회사의 명영식 사장을 비롯해 장터를 공동 주최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중앙일보 송필호 사장, 아름다운 가게의 손숙 대표, 위스타트(We Start) 운동본부의 김석산 회장과 신영섭 마포구청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십시일반의 정신을 언급하며 나누는 행복에 관해 강조했다.

더불어 명영식 사장은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나눔의 문화가 즐거운 문화가 되길 바란다.”는 축사를 전했다.

이어 속초 위스타트 마을 어린이들의 나눔에 관한 뮤지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동심으로 이끌었으며, 가수 윤하와 자두의 흥겨운 축하 공연은 행사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장돌뱅이 선서에 이어 송필호 사장의 개장 선언으로 드디어 물품 판매가 시작됐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원의 소중함

회사의 기업장터에는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로 메워졌다. 직원들은 출입구를 안내하고 인원을 통제하며 밀려오는 물품들의 가격을 확인하고 계산하느라 바빴다.

위아자 나눔장터를 위해 직원들이 기부한 의류, 신발, 소형가전제품, 문구용품, 주류 등의 물품은 2,500점에 달했다.

허동수 회장의 기증품은 190여 점에 이르렀는데, 그 중 명사 기증품 경매코너를 통해 석조형품이 80만 원에 새 주인을 만났다. 또한 GS파워의 박승엽 상무가 내놓은 피아노는 가히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다.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70만 원에 7살 소녀와 함께 온 가족에게 돌아갔다.

이날 가족장터에는 다섯 가정이 참석했다. 각 가족의 자녀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신의 물품들을 팔며 보람된 하루를 느꼈다. 나눔과 재활용을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자원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했던 위아자 장터. 내년을 기약하며 회사의 판매 수익금 1,200만 원은 아름다운 재단에 전액 기부됐다.

“내년에도 또 참석할게요!”

글 \_ 문승현 선사초등학교 4학년

| 영남LPG팀 문종원 부장 아들

위아자 나눔장터에 김밥을 싸고 온 가족이 총출동했다. 며칠 전부터 엄마랑 챙긴 물건들을 진

## 윤활유 업계 동향

열하면서 ‘하나도 못 팔면 어쩌하나’ 걱정이 앞섰다. 전날 밤에 동생과 함께 가게 이름 정하고 간판을 만들면서 노력했는데, 못 팔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그런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물건을 팔고 나서부터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장터는 거의 막바지를 향해가지만 반도 못 팔아서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못 했던 호객행위(?)도 했다. 다른 자리의 형들이 했던 것처럼 큰소리로는 하지 못했지만 효과가 있었는지 마지막에 싸쓸이를 했다. 기부금 2만 원을 내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그런데 옆 자리 분들은 명품 가방을 몇 개씩 갖고 와 팔았지만 우리와 똑같이 냈다. 참 웃기는 일이다. 남을 돕는 일에는 인색해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나는 물건 규모가 작아서 좀 창피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내년 나눔장터에도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올해처럼 수익금 전부를 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나눔의 기쁨을 나누는 현장

글 \_ 고종철 소장 | 대전저유소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대전시청 광장 앞 위아자 나눔의 장터에서 펼쳐졌다. 시골 5일장처럼 각지에 흩어진 동네사람들이 재회하며 희로애락의 토담이야기가 오가듯 서산, 천안 등에서 떨어져 살던 대전저유소 직원 가족들이 모두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현장이었다.

직원들은 자녀와 함께, 부인들과 함께 물품접수며 주차안내, 좌판 판매 등의 봉사활동에 분주하다. 매년 직원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아자 나눔장터를 통해 전국 빈곤층 어린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직원가족들의 만남을 통해 내가 아닌 우리가 될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

### 중국 속에 친환경기업의 이미지를 알리는 중국국제순환경제박람회

각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홀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 회사의 다양한 전시품들을 통해 회사 사업을 찬찬히 둘러보는 눈들이 진지하다. 중국의 순환경제 시범사업의 성과, 순환경제기술, 설비, 제품 및 해외 선진기술을 소개하고, 순환경제관련 프로젝트와 교류/협력을 도모할 목적에서 시행된 중국국제순환경제 엑스포의 열기는 뜨거웠다.

올해 첫 문을 연 중국국제순환경제 엑스포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환경부, 청도시 정부 등이 공동 주최하고 중국 각 성/시 34개, 산업단지 12개, 하이얼, 칭다오맥주 등 79개 업체와 해외 미국, 독일 등 관련협회 20여 개, 회사를 포함해 GE, SIEMENS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 국제적 행사였다.

이날 회사는 전시 부스에 회사를 비롯해 GS과워, GS퓨얼셀, GS칼텍스(청도)능원, GS칼텍스(량방)소료, 청도리동화공의 회사 소개와 친환경제품, 각종 사회공헌활동, 윤활유/기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또한 회사 Business 유관기관 등과의 관계 강화의 기회로도 활용됐다.

중앙정부 및 칭다오 시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포함해 약 5만 명의 많은 이들이 회사 전시 부스를 방문했는데 특히 박막전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부스는 관련부서와 자회사들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비롯해 2007년 8월 내몽고 전시회의 경험을 살려 최소 예산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준비가 가능했다.

## 윤활유 업계 동향

전시장 내에서는 역시 부스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이 큰 행님(?)이 되는 법. 행사장이 허용하는 최고 높이를 고수했던 것이 적중했던 것일까. 회사의 부스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주변 부스를 단연 압도했고, 도우미들을 통해 배포한 회사 소개 책자와 커다란 쇼핑백이 행사장 전역을 뒤덮었을 때 진행자로서 뿌듯함을 느꼈다. 그 결과로 엑스포의 마지막 날, 회사는 우수 전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S-OIL (주)

#### 순직소방관 자녀 학자금 3억원 지원

- 순직소방관 및 장애로 인한 퇴직소방관 자녀 100명에게 학자금 300만원씩 전달
-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공헌활동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의 일환

S-OIL(대표: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은 9월 30일 서울 용산소방서에서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및 소방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S-OIL은 사고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장애를 얻어 퇴직한 소방관 및 일반순직소방관 자녀 100명에게 자녀교육비로 3백만원씩, 총 3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S-OIL 수베이 CEO는 "순직소방관 자녀들이 사회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S-OIL은 앞으로도 소방영웅 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방관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방관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된 근무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S-OIL은 매년 순직소방관 가정 위로금 지원, 소방관 자녀 학자금 지원 및 모범소방관 포상 등 소방관 가정의 안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아태석유회의(APPEC) 전야제 리셉션 개최

S-OIL(대표: 아흐메드 A 수베이)은 10월20일 싱가포르 풀러튼 호텔(Fullerton Hotel)에서 APPEC(아시아·태평양 석유 회의)에 참석한 석유메이저, 정유사, 트레이더 등 국제 석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석유산업 관계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리셉션을 개최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석유 회의 (APPEC : Asia-Pacific Petroleum Conference)」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유산업 관련 행사로 정보공유,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기업홍보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석유산업 관련업체들 간의 치열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이 펼쳐지는 각축장으로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 래플즈 시티(Raffles City)에서 열리고 있다.

S-OIL은 이번 리셉션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석유산업 종사자들에게 첨단 고도화시설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문 정유회사, 매출액의 60% 이상을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질유 공급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위상과 비전을 소개했다.